



위기의 지역 농업  
활로를 찾자

18 강진 수국 재배 최병진씨

# 日 바이어 사로잡은 최고 품질 “판로 걱정 없어요”



강진군 움천면 최병진씨가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수국을 살펴보고 있다.

### 강진농기센터 권유로 6개 농가 함께 작년부터 재배 절반 日 수출...2,314㎡서 2만본 출하 1억여원 수익

꽃송이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수국(水菊)이 661㎡의 조그만 비닐하우스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분홍 빛깔에서 자주색 빛깔까지 형형색색의 수국들은 출하 시기를 맞은 탓인지 그 아름다운 자태가 더했다. 강진군 움천면 최병진(44)씨의 비닐하우스 5개 동(2천314㎡)에서는 최근 수국 출하가 한창이다. 올해 수확량 2만 본 가량 중 절반은 이미 일본 수출 계약이 맺어져 수출을 시작했고, 절반은 국내 화훼도매시장에 출하될 예정이다.

수국은 그동안 네덜란드와 중국, 뉴질랜드, 칠레 등지에서 대부분 수입돼 왔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최씨 등 강진군 움천면 7개 농가의 수국이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2천314㎡서 1억 원 조수의 울려=최씨는 지난해 수국을 처음으로 식재했고,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수국은 4월~10월까지 꾸준히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씨는 올해 수확량이 2만 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1 본당 6천500원 가량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수국 출하를 통한 최씨의 올해 조수익은 어림잡아 1억3천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천314㎡의 땅에서 수국으로만 연간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강진 수국의 우수한 품질 때문이다. 최씨의 수국을 비롯한 강진 수국은 꽃밥이 좋고 색이 화려하다.

최씨는 “수국은 저온에서 꽃이 예쁘게 피는 특성이 있다”면서 “강진군 움천면은 지대가 높고 산세도 깊어 수국이 식생하기 적합한 기후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수한 품질 탓에 판로도 탄탄하다. 수확량의 50%는 일본 수출이 약속됐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 양재동 화훼시장에 전량 공급되고 있다.

일본 바이어들은 지난해 2차례 최씨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수국 품질을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했고, 화훼시장 대표들도 앞다퉈 강진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화훼시장 대표들이 “있는 대로 달라”고 때를 쓰고 있다고 한다.

◇귀농 10년 만에 ‘부농’=최씨는 지난 1997년 고향인 강진군 움천면으로 귀농했다. 국내 끝지의 건설업체 엔지니어였던 최씨는 병원에서 간담 초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위해 휴직계를 회사에 제출하고 고향을 찾았다.

어머니가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와 갖가지 건강식품, 깨끗한 공기 덕택에 최씨는 1년여 만에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최씨는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다. 재발 등의 위험도 있었지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고 고향에 정착해 자신의 건강을 되찾아 준 유기농 채소 등을 재배하면서 농사에 입문했다.

현재는 업체류와 수국을 재배하고 있고, 업체류의 경우 웰빙간지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대부분 학교 급

식 등으로 납품하고 있다.

최씨는 귀농 10년 만에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부농으로 자리 잡았다.

◇민·관 협력이 이룬 쾌거=시금치 등 업체류 재배를 해오던 최씨가 수국을 접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강진농업기술센터 이재신 연구사의 권유 때문이었다.

그동안 수국 재배에 관심이 많았던 이 연구사는 강진이 수국 재배의 적지라고 판단하고, 최씨 등 일부 농가를 설득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강진 움천면에서 처음으로 재배를 시작한 뒤 현재 7개 농가(3.5ha)가 수국을 재배하고 있다.

이 연구사는 수국 재배 농가를 하루에 2~3차례 방문해 토양, 기온 등을 일일이 체크하고 농가와 상의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지도에 열성을 쏟고 있다.

또한, 토양의 질에 따라 꽃잎의 색깔이 변하는 점을 감안해 아직도 토양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중이었다.

이 때문에 최씨 등 수국 재배 농가들도 이 연구사 못지 않은 열의를 갖고 수국 재배에 임하고 있다. 국내에는 수국 재배기술 자료가 없어 인터넷 등을 뒤져 지식을 쌓거나 전남도농업기술원 교육 등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작은 기술이라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씨는 “수국은 꽃이 피어있더라도 한 순간 잘못하면 모두 시들어버릴 정도로 민감한 작물이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면서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최신 기술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 관상용 관목 수국

### 토양 따라 색깔 제각각 신부 부케·장식용 사용



수국과에 속하는 관상용 관목으로, 대부분 신부 부케와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키는 1.5m 정도 자란다. 줄기 아래쪽에서 많은 가지가 나오면서 꽃이 무리지어 핀다.

꽃은 6~7월경에 가지 끝에서 뿔뿔하게 무리지어 핀다. 꽃잎은 4~5장이지만 꽃이 피면서 곧 떨어지고 3~5장의 커다란 꽃받침잎이 꽃잎처럼 보인다.

꽃은 보통 초록색으로 피지만 토양에 따라 분홍색이나 하늘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수송은 10개, 암술대는 3~4개로, 열매는 잘 맺지 않는다.

원산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 또는 일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수국은 전세계로 퍼져 현재 수많은 품종들이 만들어져 있다.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물보(物譜)’에 수국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심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늘지거나 반그늘진 습하고 기온진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 뿌리는 깊게 내리지 않고 추위와 가뭄에 약하다. 산수국은 산에 자라는 종류로, 산방꽃차례 물레에 있는 꽃들의 꽃받침잎만 꽃잎처럼 커지고 가운데 있는 꽃들의 꽃받침잎은 커지지 않는다.

50th

사랑을 만들어가는 50년입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엔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큐텐** 연질 캡슐

큐텐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비독, 일산, 수국기 병용: 병용 시 해독력이 높음
- 눈의 건조감과 통증, 야맹증
-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시 다중 증상의 완화: 허브, 귀리, 수국기, 수국기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00